

||인들이여!! 글쓰기 연습을 하라!

최 성 남서울대/교수

재 별그룹 회장의 말에 의하면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려 준다'고 하였다.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천재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서울대 총장은 "창의적 인재양성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을 강화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전달 할 수 있는 글 쓰기 훈련에 힘써야 한다". 이즈음의 젊은이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글 쓰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육개혁을 글 쓰기에 두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창의력을 가진 천재는 글을 훌륭히 표현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일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잘 팔리는 책 중의 하나가 손바닥 크기의 '글 쓰기 스타일'(The Elements of Style)라는 작은 글 쓰기 연습 책이다. 이 책은 어느 교수가 1919년에 강단에서 글 쓰기 연습을 가르치며 만들었던 강의록을 그의 제자인 E. B 화이트가 수정해서 40년 후에 만든 책이다. "글은 간결하고 짧게, 두 개의 문장을 길게 붙여서 쓰지 말고, 수동형은 피하고, 불필요한

단어는 버려라”라고 한다.

미국의 일류 대학에는 글 쓰기 연습 과목이 있으며, 이 과목에 소속된 강사진은 시인, 소설가, 역사가, 에세이작가, 전기작가 등 다양하다. 글 쓰기 교육 과목은 세 개 분야로서 수사학, 창작, 과학기술기록으로 나누어진다. 대학생들은 현대공상과학소설, 과학에세이, 과학저널리즘,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수사학 등 가운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고른다. 왜냐하면, 글 쓰기 연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쓰기를 통해 명쾌한 사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연구 능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에서 글을 잘 썼던 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성공하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 할 정도로 쓰기가 중요하다. 과학기술자에게 쓰기는 지식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 독자와 같은 분야 전문가들의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이즈음의 저서들은 대부분 공저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서 협동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자료들이 e-Mail을 타고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글 쓰기 연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글 쓰기 연습 시간에 교수들이 학습하는 학생에게 부여하는 리포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모터나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사과는 왜 떨어지는지,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뇌에게 알려주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리포트를 하면서 장래의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모호하게 알고 있던 작동 메커니즘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 또한 이런 과제를 해 본 학생들은 졸업 후에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어도 과학과 기술을 고객에게 쉽게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학조사연구기관에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과학자와 엔지니어에게서 "글 쓰기 능력이 자신의 개인적 경력과 출세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하였다. 특히 관리자급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1%나 됐다.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젊은 엔지니어는 졸업 뒤 5년 안에 관리자가 될 수 있다.", "형편없는 제안서와 보고서로는 연구비와 고객을 얻을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의 질은 아이디어의 습득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답안에 써놓았다.

또한 이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최소한 자신의 시간 중 3분의 1을 쓰기, 읽기, 편집,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 쓰기와 관련 된 일에 매달린다. 승진할수록 비율은 더 늘어나 연구원은 34%, 책임자는 40%, 관리자는 50%를 쓰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그렇다고 글 쓰기가 출세와 승진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위대한 과학자들 가운데는 훌륭한 작가도 많다. 지난 500년 동안 과학혁명을 주도해 왔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다윈, 프로이트, 슈뢰딩거, 제임스·왓슨, 레이첼·칼슨 의 논문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훌륭한 저술

을 하신 분들이다.

갈릴레오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믿는 두 학자와 한 명의 지식인이 논쟁을 희곡처럼 구성한 '대화록'을 써 유명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로마 교황청에 끌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윈이 5년 동안 남미와 갈라파고스를 둘러보고 와서 쓴 '비글호의 항해'는 탐험한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문학사에서도 고전으로 꼽힌다. 진화론을 체계화한 '종의 기원'은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된 베스트셀러였다.

감추어져 있던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친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을 고전으로 남겼다. 양자역학의 기초를 세운 슈뢰딩거는 말년에 15년 동안 아일랜드에 살면서 물리학, 철학, 과학사를 섭렵해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썼다. 젊어서 이 책을 읽고 감명 받고 DNA 나선구조를 발견한 제임스·왓슨은 나선구조를 밝혀내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도전과 욕망을 그린 '이중 나선'을 써서 과학자들의 애독서가 되고 있다.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첼·카슨이 쓴 '조용한 봄'은 환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즈음 선진국에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책을 통해 대중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지식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대중 저서로 풀리처상을 두 번 받은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윌슨,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도킨스, 시간의 역사를 쓴 스티븐·호킹, 가이아 학설을 주창한 제임스·러브록과 린·마굴리스, 마음을 파헤치는 이론 물리학자 로저·펜로즈 등은 전문 작가 못지 않게 글을 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들이다.

이렇듯 미국의 일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왜 그토록 글쓰기 연습에 열심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 대학생들이 '글'에 맥을 못 추는 것은 관심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쓰기 교육을 받지 않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 쓰기 연습에 미숙한 공학부 학생들에게 글 쓰기 연습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미적분과 기하학만 배워서 그런지 문과 출신 학생들이 잘 쓰는 것을 볼 때 한계를 느낀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글은 엉클어진 생각을 질서 있게 정리해주는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글 쓰기를 '마음의 서치 엔진'이라고도 한다. 과학은 '생각하는 방식'이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고, 창의력이 발휘 할 수 없다. 하찮은 실험 결과도 자꾸 글로 정리하면서 마음의 서치엔진을 작동시키다 보면 위대한 발견에 이를 수 있다.

이즈음 국내외에 IT분야의 헤드헌터들이 가장 선호하는 IT엔지니어는 영어나 기술력과 더불어 글을 잘 정리하고 창의적인 쓰기를 하는 인재를 찾는 것이 이들의 임무이다.

출세를 위해서도 IT인들은 글 쓰기 연습을 해야 한다.